

# 골프장 건설로 아파하는 사람, 생명체들 -강원도를 중심으로-

박 순 용 (목사, 홍천 동면교회,  
강원교회협 생명선교위원장)

## 1. 들어가는 이야기

전 국토가 신음하고 있다. 4대강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와 주민들, 사람들만의 편리성을 추구하려는 것에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더디 가자고 요구하는 밀양의 송전탑 반대하는 주민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건만 정부는 여전히 에너지의 대안을 원자력이라는 핵에 의지하려는 것에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삼척 원자력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 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법을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며 송전탑 고공 50m 높이에서 많은 이들을 대변하면서 겨울을 보내는 현대 자동차의 60대와 30대 두 사람, 역시 “함께 살자”라고 외치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강원도에서는 온 산 천지가 까 부서지고 뭉개져 버린 것에 “이러면 안 되지” 하며 골프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 대부분 이들은 사람을 비롯하여 동, 식물들, 그리고

바다와 강 등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생생한 현장들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와 개발 업자들은 생태계에는 관심도 없으며 어떻게 하면 더 이익만을 챙기려 고민한다. 로비를 통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묘하게 지역과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인간은 피조물 중의 하나인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그 이야기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을 전제한다. 피조물인 흙과 나무와 공중의 새와 동, 식물 등등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몇몇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쫓겨나고 있다.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의 개발과 논리로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 탈법을 일삼으면서 말이다.

독일의 생태학자 베스터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여러분은 참새 한 마리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얼마 안 된다고 여기겠지요? 그러나 생태학자는 이렇게 값을 붙였네요? 참새의 뼈와 살코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값으로 쳐 봤자 3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참새가 짹, 짹, 짹 거리는 소리의 값은 좀 비쌉니다. 혹시 참새들의 소리 들으셨나요? 그 소리를 매일 아침 들어도 신경질이 안 나는 것은 바로 참새의 소리는 아니 참새뿐 아니라 모든 새들의 소리는 동, 식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 안정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신경 안정제의 역할 값은 30,000원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참새들의 먹잇감으로는 익충도 있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해충도 잡아먹습니다. 그 값이 무려 20,000원 정도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벌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씨앗 까지도 먹어서 여기저기 종자를 번식시키며 퍼뜨립니다. 이 종자 번식을 시키는 값은 무려 45,000원이라 합니다.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참새 한 마리에 있겠지요. 참고적으로 참새의 수명은 대략 4-5년이라 하니 그렇게 계산해 보면 무려 참새 한 마리의 값은 400,000-500,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작은 참새의 값어치도 이러 할 쩌대 다른 것들은 어떻겠는가? 참새의 이야기는 참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있는 그물망의 이야기이다. 바로 촘촘히 엮여져 있는 관계의 생태계를 누군가가 파괴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골프장 사업주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2. 강원도 골프장 난개발 현황과 문제점

### 1) 골프장 개발 현황

강원도 내 골프장은 2012년 6월 기준(강원도 발표) 50개소가 운영 중이며, 건설 중인 곳은 21개소, 진행 중인 곳은 13개소로 현재 건설과 추진, 진행 중인 총수는 84개소, 1,544홀이다. 84개소의 총 면적은 84,356,058㎡로 여의도 면적(2,644,628㎡)의 약 32배, 축구장 크기(7,140㎡)의 11,815배이다. 이는 2010년 말 기준 강원도 골프장 총 면적인 47,769,652㎡보다 1.77배 늘어난 수치이며, 2010년 이후 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강원도로 골프장 개발이 집중되는 주요 원인은 시도별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비율 5% 초과금지 규정이 폐지되고, 골프장 사업계획서 내 산림 수림지 확보율 40% 이상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경사도 기준 20도 면적 50% 이상에서 25도 40%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와 춘천 서울 간 고속도로 개통 등 접근성 용이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강릉, 원주, 홍천 지역 10여개 마을 5-8년째 주민피해 해소와 불·탈법 인허가 과정 재검증 요구, 토지 강제수용 반대를 외치며 싸우고 있다.

### 2) 골프장 개발 과정의 문제점

#### (1) 원주민들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 파괴

강원도내 골프장은 접근성의 용이함을 위해 톨게이트 인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백 년 터전을 이루고 살던 원주민은 토지 강제수

용으로 쫓겨나고 친환경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농약 피해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 지하수 오염과 부족, 하천의 오염, 농업용수의 부족 등의 우려로 삶의 터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 (2) 지자체, 환경청, 산림청 등의 직무 유기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산림조사서, 재해영향평가서, 토지적성평가서 등 골프장의 개발을 위한 각종 평가서를 사업자가 부실하게 작성 제출하지만 지자체, 환경청, 산림청 등은 적법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들이 부실하게 작성된 증거를 제출해도 이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며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 (3) 세수, 고용효과 미미, 개발업자 위한 골프장 허가 남발

골프장 사업자들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맞대응하는 가장 주요한 논리는 지방세수 수입과 지역 경제발전 기여이다. 그러나 2008년 3월 민주당 신학용 의원 의뢰로 작성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는 18홀 골프장(약 30만평)의 지방세수 수입은 약 5-6억 수준이며(이마저도 이명박 정부의 세수 감면 정책으로 반으로 줄었음), 지역 주민의 고용효과도 풀 뽑기, 청소 등 일용직에 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원주에서는 시의원이 18홀 대중 골프장의 지방세수 수입을 직접 분석결과 1.6억 원 정도의 세수 수입이 전부라는 결과를 확인한 바도 있다.

## (4) 주민 반대활동에 대한 사업자, 지자체 등의 탄압

강원도와 강릉시, 골프장 사업자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홍천 구관리 사업자 (주)원하레저는 주민들이 지하수 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1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였고, 강릉 구정리 사업자 (주)동해임산은 강원도 감사 대상지 훼손을 저지하던 주민들에게 약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하였다. 또, 강원도 강릉시, 홍천군 등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 등을 불법행위로 모는 등 주민들의 경찰 조사 및 재판 중인 사례가 20여건 이상이다.

### (5) 야생동식물의 삶터인 산림 생태계 파괴

강원도는 남한 지역의 허파이자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처로서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일컬어지고 있다. 강원도 내 골프장 개발 대상지의 약 85% 이상이 산림지역으로 야생동식물의 삶터인 산림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

### (6) 주민 생계 위협, 전과자 전략

강릉, 홍천, 춘천, 원주 지역 약 15개 마을 원주민들은 5-7년째 골프장 반대 투쟁 중이며 이 활동으로 인해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강원도청 앞 노숙은 이미 1년을 넘겨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농사일마저 뒤로한 채 반대 투쟁 중이며, 가족이 살던 집을 팔고, 마을을 위해 쓰려고 모아두었던 기금도 모두 소진되었다. 이런 주민들을 향해 경찰 조사 및 재판 중인 주민 피해 사례 약 20 여건 등 개발 업자와 공권력에 의한 주민 탄압 극에 달해 있다.

### (7) 친환경농업지역 파괴

홍천 두미리, 원주 구학리, 강릉 구정리, 홍천 갈마곡리, 홍천 월운리, 홍천 구만리는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강릉 구정리는 골프장과 인접하여 100만평이 넘는 면적이 친환경인증 받은 산채, 송이 등 임산물 생산지이다. 홍천 두미리는 전체 마을 120여 가구 중 60여 가구가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으로 골프장이 유기농지와 맞닿아 있어 개발이 추진되면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된다. '나를 만나는 숲'의 한광용 박사는 골프장 농약은 최대 150km까지 이동해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8) 토지 강제수용

골프장 개발로 인해 주민들은 대대손손 살아온 삶터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선조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강제수용을 당하고 있다.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재산권을 침해한다.” 며

골프장의 공익사업 분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012년 12월까지 유예를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부칙을 개정해 기존 인허가 신청 골프장들은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약 5개 마을에서 토지 강제 수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이 추진 중인 마을들에서 토지강제수용이 예정되어 있다.

### 3. 강원도에서 골프장으로 인해 아파하는 생태계의 모습들

위에 언급했듯이 강원도 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것, 추진 진행 중인 곳을 다 합하면 84개소, 1,544홀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산림과 생태계를 온통 뒤집어 놓고서 부도를 내면 그냥 허허 벌판으로 까발려져 있다는 것이다. 보기에다 웅 할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았던 수많은 생명체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 단지 몇몇 이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다가 무참히 쫓겨난 이름 모를 생명들...

골프장이 들어오는 곳곳에는 오래 전부터 함께 살아온 혈연 중심의 자연 마을들이 있다. 바로 마을 공동체이다. 이들은 삼삼오오 수 천년동안 대대로 거기서 농사를 일구며 살아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나무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있음을 호흡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짐승을 함부로 잡지도 앓았다. 서로가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고 싸움을 해도 이내 다시 화해하고 지낸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수 백년 간 내려온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며 파멸로 내모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동네에 들어오고 있다. 바로 골프장이다. 소수의 놀이터를 만들려고 동네 사람들을 갈기갈기 분열시키고 찢어 놓았다. 돈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매수하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인데도 다른 사람들이다. 여기에 놀아 난 사람들을 어찌 미워할 수 있으랴? 결국에는 이렇게 매수 된 사람들도 돈 때문이었다는 것에 더더욱 가슴이 아프다.

골프장의 문제는 찬, 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생명의 문제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웃을 파괴하고 자연, 생태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골프장은 우리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기독교인으로써는 용납 할 수 없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이미 지역민들은 창조주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많은 곳이 파헤쳐지고 망가지고 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아 더 가슴이 아프다. 강릉의 구정리, 원주의 구학리, 홍천의 동막리, 구만리, 갈마곡리, 월운리, 두미리 등의 지역민들이 길게는 7-8년, 짧게는 2-3년을 힘겹게 싸우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바로 법, 법, 법대로 다시 검증해 달라라는 것이다. 원칙과 법대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하면 허가 내줄 수 있는 골프장은 어느 곳도 없다. 그렇게 모두 불, 탈법으로 혹은 로비로 혹은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엉터리인 것을 알고 환경청에, 법사위에 법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해달라고 지역민들이 이야기해도 조사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이다.

하루가 지나 한 달, 한 달이 지나 일 년, 일 년이 지나 벌써 이 년을 맞이했다. 강릉시청에 농성 막사가 시작됐고, 강원도청에 농성 막사를 짓고 비닐로 씌우고 지낸지가 겨울을 넘어 또 다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봄에 홍천에서부터 시작 된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가 여름을 지나 가을을 넘어 겨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으로 11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마다 20-30명씩 모여서 목회자와 지역민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도회를 또 다시 시작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를 기독교의 모토로 내세운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다. 그분 보시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외롭게, 고독하게 생태계를 지키며, 지역 공동체를 지키려는 지역 주민들을 보면 더더

육 우리만의 기독교인 것 같아 부끄럽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하려고 애쓴다.

단식을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도 했다. 도지사가 바뀌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역시 무능한 도지사였고 우리는 바보가 되었다. 오히려 다른 골프장을 또 허가해주었다니 기막힐 지경이다. 수 없이 많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기자회견도 했으며 점거농성도 했다. 그 때마다 오는 것은 범법자의 판결과 약식명령으로 나오는 벌금형 고지서, 약자에게 행하는 엄청난 폭력이다. 벌써 구만리의 대책위원장 반경순 씨는 범법자 8범으로 낙인찍히며 벌금형도 수 천만 원이나 받았다. 어디 이 분 뿐인가? 각 지역의 사람들과 시민단체 사람들 모두를 그렇게 쉽게 저들은 범법자로 처리했다.

그러나 각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창조주의 뜻이기도 하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함이니 어찌 전과자 몇 몇 개 붙이는 것 가지고 창피하거나 두려워하겠는가? 더 단단해지고 강하게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갖게 해 주며 옳다고 여기니 강원도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이 함께 옹호한다. 분명한 것은 신음하는 피조물의 아픔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김진숙 님의 크레인 고공 농성에서 전국의 희망버스가 세상에 아픔을 전했다. 그 후 제주도의 강정 마을의 구름비 바위의 생명을 보고 느끼고 알리는 평화 비행기가 있었다. 우리는 강원도의 골프장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버스를 전국에 띄웠다.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알리니 생명버스를 한 달에 한 번씩 알릴 때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몰려왔다. 이들이 또 다시 각각의 지인들에게 소식을 트위터로 알리고 알렸다. 지난 10월의 생명 버스에서는 천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골프장은 안 돼”를 외치고 또 외쳤다. 이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우리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도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도지사이다.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몇몇 가지의 소중한 자산이 바로 강원도에 있다. 첫째는 지역민들의 단합이며, 둘째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생태 보고(寶庫)이다. 잘 관리만하면 골프장이 아니라 저절로 강원도의 숲을 찾으러 올 것인데 왜 결정을 못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셋째는 농업이다. 골프장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이룰 수 없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인접한 청정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은 친환경농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넷째는 깨끗한 물이다. 벌써부터 물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어디에서 이러한 강원도의 깨끗한 물을 찾을 수 있겠는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두를 오염시키는 골프장을 왜 하려는 것인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마지막으로 물새 한 마리를 소개하고 마치려 한다.

“1946년 영국 동부 서포크지역 해안에 있는 민스미어에 물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농지개간과 산업용지를 위한 습지 매립으로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던 곳이다. 그러기에 지난 백여 년 동안 이곳을 고향처럼 찾아들었던 새들도 떠난 지역이었다. 그런데 바로 1946년에 새 한 마리가 찾아 온 것이다. 쓰레기 같은 매립장에... 그곳을 찾아온 새는 자그마치 100년 만에 온 것이기에 온 국민들은 경외심으로 들썩였다. 특히 영국의 왕립조류보호협회(RSPB)는 이 새의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습지를 만들자고 나섰다(매립지 복원). 그 후 황무지였던 그곳은 두 분야 즉, 산림지역과 목초지, 습지로 나뉘서 조성됐다(969ha 축구장 크기의 1,326개). 약 200ha 규모의 습지에는 수로와 수문을 만들어 담수와 해수를 조절해 공급하고 갈대밭(165ha)을 조성했다. 조성 후, 세월이 흘러 60-70년이 지난 지금 이곳을 찾는 새들은 연간 최대 335종, 산란하는 새들도 무려 100여종에 이르고 있다. 습지의 규모에 비해 다양성 측면에서나 산란의 측면에서 영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 새 한 마리의 이름이 뒷부리장다리물떼새(avocet)이다.”

엄청난 사건임에도 웬지 씁쓸하다.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고나 할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왜 한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장들은 어리석게도 단기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일까?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 무수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은 철학과 가치관의 부재가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랴!

#### 4. 나가는 글

천연기념물이 있으면 그곳을 개발하지 못하게 환경영향평가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천연기념물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하늘 다람쥐보다도 더 많은 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까막딱따구리보다도 더 많은 새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다. 더불어 수천 년 동안 거기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이랴! 깨끗한 물이 수없이 흐르고 있으며 그것은 사람과 동, 식물들의 목을 축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까지도 연계되어 있다. 천연기념물보다도 그냥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나무, 숲, 물, 벼, 발작물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당장 몇몇의 놀이터로 일구려는 골프장은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豊稔